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936호 1판 (음력 1월 7일)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우암학원 창학6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호남+제주 1석 늘때 영남은 11석 는다

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의견 국회 제출
서울 11·인천 경기 강원 25·대전 세종 충청 6석 늘어나
단순 인구비례따라 의석수 나눌 경우 호남 상대적 불이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 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한 고비용 정치의 '공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3면〉

선관위 개정 의견에 따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 도입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 가량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현행은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을 보이는데,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300석)를 나누게 되면 호남권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관위 안을 적용하면 광주·전남·전북·제주권역의 의석은 현행 33석에서 34석으로 1개 늘어나는데 그친다. 반면

■ 선관위 제안 지역별 국회의원 의석수

서울권역은 현행 48석에서 59석으로 11석이 늘어나고, 인천·경기·강원이 73석에서 98석으로 무려 25석이 증가한다.

부산·울산·경남은 40석에서 47석으로 7석이, 대구·경북은 27석에서 31석으로 4석이 늘어나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이 25석에서 31석으로 6석이 증가하게 된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 후보직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선관위는 과거의 지구당 격인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처럼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선관위의 제안에 대해서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완전국민경선제와 지구당 부활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민간 사무처장 도입 교육부서 신설·국제 역량 강화

혁신위, '7대 혁신안' 발표

'광주비엔날레 발전위원회'(가칭) 운영, 민간 사무처장제 도입, 교육부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광주비엔날레 혁신안'의 큰 윤곽이 나왔다.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위원장 정동채)는 24일 오후 2시 재단 거시기홀에서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시민공청회'를 열고 '광주비엔날레 7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17면〉

7대 혁신안은 ▲광주의 역사적·문화예술적 가치를 극대화한 글로벌 비엔날레 ▲조직의 고유 역량 강화를 통한 정체성 실현 ▲이사진 구성의 혁신과 최고의결기구로서 역할 및 책임 강화 ▲파견공무원 축소 및 민간 사무처장제 도입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재원 확보와 효율적 유지 관리 체제 구축 ▲재단과 지역의 소통 및 협력 시스템 구축이다.

혁신위원회는 혁신안 발표에 앞서 광주비엔날레 20년 역사의 가치와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부족, 특화된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부재, 국제미술계와의 교류 치중으로 인한 지역 사회와의 소통 약화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혁신안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21세기 동시대 문화예술현장을 견인하는 대표주자로서의 마스터플랜 구축, 책임과 권한을 담보한 분야별 전문가 15인 내외의 이사진 구성, 개방형 공모를 통한 민간 사무처장 선출, 재단 이사회 직속 '광주비엔날레 발전위원회' 구성, 수익 증대를 위한 재단 기금 운용 다각화 방안 마련 등 안건을 광주비엔날레재단에 제안했다.

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준한 경영공시, 혁신과제의 추진 현황 및 실적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6일 '광주비엔날레 혁신안'을 최종 발표하고, 27일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

"아동 성폭력 추방…희망의 꽃 함께 피워요"

광주시와 전남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는 24일 전남대병원 1동 1층 로비에서 '제9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가졌다. '우리 함께 희망의 꽃을 피워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광주·전남 여성단체 회원과 어린이들이 '희망 화분'을 손에 들고 아동 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찢겨진 화순읍 '들국화 마을' ▶6면

오기자의 광주5味 '낙지호롱' ▶16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혁신도시의 힘' 나주 땅값 27% 폭등

올 공시지가 전국 최고 상승률
광주 최고는 충장로우체국 앞

올해 나주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7%나 뛰어오르며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땅값이 치솟은 것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데다 기반시설 확충 효과로 풀이된다.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큰 이전규모 덕분에 불어닥친 부동산 투자 열기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14% 상승' 자료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해와 비교, 26.96%나 표준지 공시지가가 뛰어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두 번째로 높게 오른 세종시(15.50%)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큰 격차를 보였다.

나주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30% 가까이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빛가람 혁신도시 효과 덕분이다. 2013년 혁신도시 개발이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됐다면 2014년에는 16개 이전기관이 대부분 이전을 마친데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와 상가도 입주가 시작되면서 기대감과 함께 가격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른 혁신도시와 규모에서 차별화를 이룬 것도 공시지가 상승의 한 이유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꾸린 빛가람 혁신도시는 733만2000㎡의 면적에 세워져 전북혁신도시(990만9000㎡)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데다 이전인원은 6763명으로 10대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다. 여기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 우량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자족·자급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커지면서 땅값 급등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동구 충장로우체국 맞은 편 '루카즘 미용실'로, ㎡당 지난해보다 30만원 오른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목포 죽동의 '원조순대떡볶이'가 가장 비싸 ㎡당 380만원을 기록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